Dubai유, 또다시 50달러 접근

11월18일 50.20달러로 0.68달러 하락 ... WTI 상승이 문제

11월18일 국제유가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선물시장의 매도세 출회 및 충분한 재고수준 유지 소식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NYMEX의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20달러 하락한 56.14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03달러 상승한 54.88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현물유가는 WTI가 배럴당 56.78달러로 0.39달러 상승한 반면, Brent는 52.38달러로 1.03달러 하락했다.

Dubai 현물유가도 17일 미국의 겨울철 난방유 재고 우려 해소 영향을 뒤늦게 받아 0.68달러 하락한 50.20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11/15	11/16	11/17	11/18
현 물	Dubai	50.55	50.09	50.88	50.20
	Brent	54.09	53.50	53.41	52.38
	WTI	57.08	57.79	56.39	56.78
	Oman	51.65	51.20	51.98	51.31
	Tapis	56.68	56.27	57.16	56.44
NYMEX 선물(WTI)	12월	56.98	57.88	56.34	56.14
	1월	57.61	58.45	57.15	57.21
환율(원/달러)		1044.00	1047.50	1046.50	1047.5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11월18일 국제유가는 미국 날씨가 예년보다 추워질 것이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난방유 수급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하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2월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예측도 유가하락에 일조했다. OPEC은 겨울철 성수기 도래를 앞두고 수출량을 일일 2500만배럴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11/21>